

오해와 편견의 송판도 함께 깨졌으면 ...”

북한 태권도 북기주 시범

1차 처음으로 미국 순회 시범 위해 지난 4일 오전 LA를 통해 입국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일) 오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당일 오후 4시 프레젠테이션을 체육관에서 북한 태권도의 모습을 선보였다.

중전에 공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영사와 담사가 끝난 후 정수원 마샬아트 아카데미에서 두 차례의 격파 시범이 있었으며 북미 인디언의 전통춤이 이어진후 북한 태권도 시범단 관계자들과 주최측 관계자들, 그리고 관객들이 한데 어우러진 '강강수월래'를 연상케 하는 북미 인디언 서클댄스가 있었다. 이후 UC버클리 BGO의 시범이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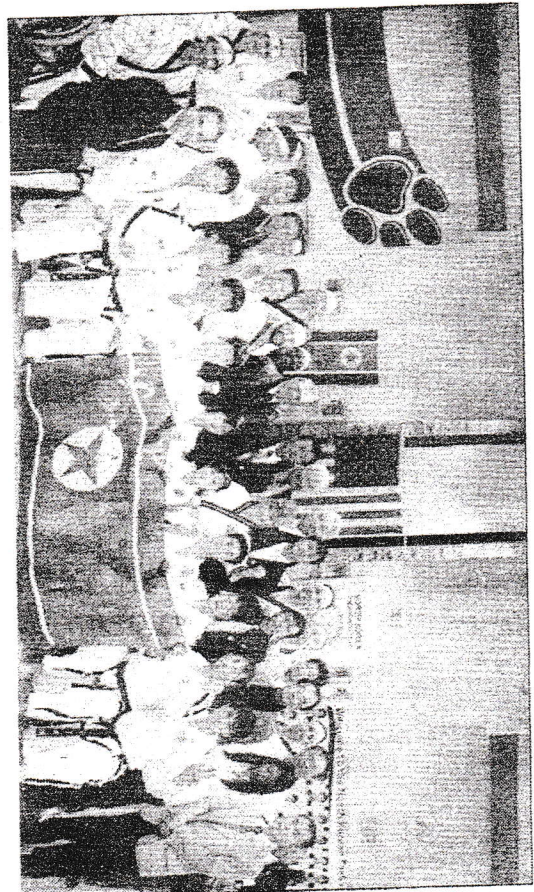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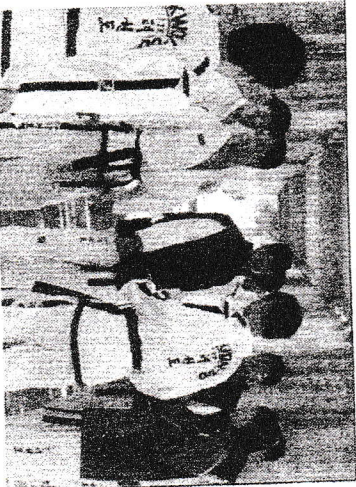
종류의 격파 시범이 있었으며 호신술 시범도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했다"면서 "시범이니까 메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은 차체가 의의가 있다"며 "동포여러분들을 만나게 돼 감사한다"고 말했다. 배능만 단장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과 동포 여러분들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통일된 조국에서 꼭 만납시다"라고 말했다.

시범이 나옴 12명의 북한 태권도 시범단 선수들은 첫번째 순서로 '단군' 풍채를 선보여 이날 모인 1200여 관객들에게 태권도가 가진 박력을 느끼게 했다. 품새 시범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진지하지만 할 것으로 생각했던 이날 태권도 시범은 여성관계 한 명을 데리고 나와 여러명의 '강패'들을 상대하는 호신술 시범, 리슨금 선수가 태권도를 하지 못하는 남지친구를 보호하면서 여러 명의 '강패'들을 때려눕히는 시범 등을 선보여 많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함께 통쾌함을 선사했다.

한편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한국과 미국 교회청년단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후 김태연 라이트 하우스 회장 자택에서 열린 리셉션에 참가했다. 8일(월) 오전에는 실리곤밸리,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한 뒤 저녁 6시부터 오클랜드 아시아문화센터에서 북기주 준비위기가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 시범단은 오늘 오후 2시 아이오와로 떠난다 <박승범 기자>



태권도 태권도의 정수원 회장이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무 있다. 시범단은 다음날 아이오와의 켄터키주에서도 공연

“태권도로 북미 관계 개

북한 태권도 시범단 초청 정수

▶관련기사 5면

“미국과 중국이 평종 외교로 수교를 맺듯이 북한과 미국도 태권도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달 6일부터 14일까지 캘리포니아 아이오와 켄터키 주지 이주를 순회하며 북한태권도 시범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태권도의 정수원 회장은 본

한 태권도 시 이 합의했었다 일 위기로 연 추진하게 된 현재 공연장 시범단의 무 난날 말 받은 정 회장은, 단에 대한 신 있는데 이번 것으로 기대

아이오와 · 켄터키서도 시

The Gazette

MARTIAL ARTS

North Korean experts give C.R. goodwill show

By Adam Beltz

The Gazette

A near capacity crowd at the Paramount Theatre recoiled with Sun Hui Kim as she jumped back from a stack of bricks she had tried but failed to break with her right elbow. It must have hurt. But just then, for the first time last night, one of the North Korean tae kwon do black belts on stage broke a half-smile. It was Kim.

The looked sideways at the crowd, held a finger in the air to say "just you wait," and returned to the stack of three bricks sitting on cinder blocks at the center of the stage.

Laughter went up in the crowd and scattered applause broke out to encourage the young woman with short, straight black hair.

Kim gathered herself and attacked the bricks again, putting all of her weight into it. This time the bricks fell in

► TAE KWON DO, PAGE 8A



Lindsay J. Carmack/The Gazette

North Korean tae kwon do demonstrators perform a break at the Paramount Theatre in Cedar Rapids on Wednesday. The team of experts was brought here by Woo-jin Jung on the first Goodwill Tour of the United States.

태권도팀 미국오고 필하모닉 북한가고...

냉랭한 북미관계 해빙?

문화·체육교류 찾아져

얼어붙었던 북미관계가 곳곳에서 해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조짐은 최근 북핵 6자회담 공동문건 채택과 남북 정상회담이 맞물려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 기업인들은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대북 직접투자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북한에서 공연을 추진하는 등 문화계에서도 북미관계가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다.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가 물꼬를 트고 있다.

지난 4일 미국 평을 밝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12박13일 일정으로 LA를 비롯 샌프란시스코 등 5개 도시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미 주류 언론들은 이들의 방문을 경쟁적으로 취재하고 크게 보도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방문에 화려하듯 뉴욕 필하모닉은 4일 북한의 초청을 받아들여 평양 공연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늘(6일) 사상 첫 미국 공연을 펼치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일행이 5일 오후 CBS 스튜디오 센터 내 태권도장에서 컨디션 조절을 위한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타 화장과 에릭 리츠키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준비팀은 베이징을 거쳐 6일 북한에 돌아갈 예정이다. 미국 무부 관리도 여기에 동행해 북한측과 평양 공연 일정과 계획을 조율할 예정이다.

관계당국자들은 뉴욕 필하모닉의

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욕필의 평양 공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 2월 7-25일로 예정돼 있는 중국 공연이 끝난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일러진다. 곳에 장소는 평양, 대관

짧히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2일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국계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원하는 법안을 포함한 2008년 국방예산수권법안을 93대 2의 압도적 표

국회 통과시키려 한다는 소식에



오늘 사상 첫 미국 공연을 펼치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일행이 5일 CBS 스튜디오 센터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석, 미주 한인들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석 한인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태권도 북미교류 '물꼬'

오늘 북한 시범단 LA 공연...CBS 중계

중앙일보 후원

▶ 관계기사 4면

4일 LA를 방문한 북한 태권도 시범단 <본지 10월5일자 A-1면>이 오늘(6일) 미국땅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펼친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은 오늘 오후

도의 발차기 시범 등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 참석을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장웅 IOC 위원 및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는 "태권도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 땅에서 우리의 태권도를 선보이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번 공연이 앞으로 북미 관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

권도 올림픽 국가대표팀의 시범 공연으로 이뤄진다. 특히, 한인 인사들 외에 마이클 클로우즈먼 CBS 사장, 앨런 혼 워너 브라더스 사장, 덴젤 워싱턴, 멜 깁슨 등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도 대거 참석, 이번 행사를 빛내줄 것으로 보인다. 공연 실황은 CBS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 이들은 이어 오후 7시부터 CBS 스튜디오 센터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석, 공연 주최측과 최병호 LA 총영사, 차종환 평통LA지역협의 회장을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 관계자 및 주류사회 인사 등 200여 명의 환영을 받으며 LA 한인들의 환대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12박 13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들 시범단은 LA를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아이오와 시더

동양일보

The Korea Daily

Monday,

북·미 '태권외교' 시동



▶ 관계기사 2면·화보 13면

5개 도시 순회공연차 미국을 방문중인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6일 CBS 스튜디오에서 나무를 격파하고 있다.

북한 태권도 시범공연 성황



비디오테이 출시로 TV시리즈물 '월크'에서 주인공역을 맡았던 루 페리노(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도 시범단의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남·북·미국 '하나된 축재'

중·일·미 후원

시상 처음으로 미국영에서 펼쳐진 북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남·북 그리고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다.

지난 6일 오후 7시 CBS 스튜디오 센터 야외 특설무대에서 할리우드 스타 돈 드래곤 윌슨의 사회로 펼쳐진 이번 공연에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 12명은

합동 품세 시범, 고난이도의 발차기 시범과 벽돌, 송편, 기왓장 격파 시범, 그리고 호신술 시범 등 태권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특히 김진성 시범단원의 기왓장 연속 격파를 끝으로 시범단 공연이 막을 내릴 때는 2000여

동해 태권도 팬이 "다"고 말했다. 일반 관객들 외에는 마이클 블라, 스튜디오 센터, '월크'의 전설적인 루 페리노 등 할리우드 스타와 LA, 할리우드

잇단 묘기에 타인종도 열렬한 박수
CBS 시장 "칭찬이래 가장 역사적"

IOC 위원
도연맹(TI

DRING &
SAT PREP
2007년 10월 8일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카드와 사액 시어 | BankCard Services
1.800.339.0100

1 중앙일보

Los Angeles

북한 태권도 시범

2007년 10월 8일 (월요일) A

양미복·미분신의 벽 깨다



신술 시범에
가나갔다. 6
루디오 센터
가득메은 2
? 신술린 격
아낌없는 박
을 포환에 12
된 북한 태
은 품세의
치기, 벽을
반도의 모든
었다. 이날
미국이 태권
되는 강동
치다. 북한
연을 호보
양진 기자

AC. DC AUTO 191 (847) 974-9709
 Sound & Security Fax (847) 674-6765
 5848 N Lincoln Ave #3
 Lincoln Park, IL 60730-3338

• 스테레오
 • 티브이
 • 차량TV/
 VCR & DVD
 판매 및 설치
 오토 인세치리
 각종 애플리언

중영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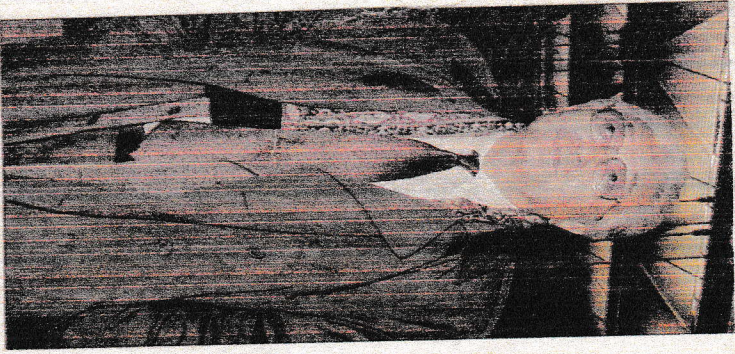
Chicago

• 제 8451 호 • Saturday, November 23, 2002 전화: (847) 228-7200

THE KOREA DAILY

“태권도도로 민족통일 기여”

미국방문 정응 북한 IOC위원 본지 단독 인터뷰



“민족통일에 태권도가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정응(64·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IOC) 겸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가 20일 저녁 시카고 오헤이오공방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태권도를 통한 민족통일을 역설했다. 정응 위원은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가 콜로라도 스포팅필드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시카고를 경유, 콜로라도로 가는 길이었다. 정 위원은 이번 콜로라도 국제회의에 북한의 국제부도경기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영선씨, 이영선씨 등 수행원 3명과 함께 시카고 오헤이오 공방에서 미국 인공심사를 가졌다.
 정 위원은 태권도 대부분을 불린다 최근 타계한 고 최홍희(ITF) 총

재의 총재직을 승계받아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는 지난 봄 북한의 태권도 시범 교류단을 이끌고 본국을 방문. 태권도 시범 교류를 하는 등 활동이 두드러져 태권도계에서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여름 샌타 올림피 때 북한 대표팀 단장으로 와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이 시카고 방문은 두번째인 셈.
 그는 앞으로 태권도 발전과 관련 “남한은 태권도가 스포츠화되고 있고 북한은 민족의 부도로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앞으로 태권도 만이라도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통치는 것을 모색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번 회의 때 도 남한의 김운용 IOC위원과도 만나 상의할 생각”이라며 “지난번 남한에 태권도 시범 교류 때도 김운용 위원을 만나 이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남북한을 비롯 국제태권도의 분리 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지난번 남북과의 태권도 시범단 교류는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3면에 계속>
 이상영 기자

정응 위원도 스포팅필드에서 개최되는 태권도인 정우진씨 등이 마련하는 환영 만찬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헤이오 공방을 떠났다.
 정응 위원은 이번 콜로라도 국제경기단체 회의에 이어 멕시코에서 열리는 IOC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후 유럽을 거쳐 북한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거리의 크리스마스 장식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718-928-1111 35¢

주방 · 육상 · 테니스 · 배구
The Korea Times Group
WORLD
7100-300 Woodlochwood
Baltimore, Maryland, USA

스미일치과

T. 212.534.9197
718.295.7777

Monday, June 13, 2011

북한 태권도 시범단 뉴욕최초 공연 ▶ 권기식 특필



미국동 방음 중인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2일 필조 칼리지 타조제빌드 체육관에서 800여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태권도 공중 각파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 체육관 천정에 설치된 천막이 천막이 펼쳐져 있는 채행의 인공기가 푸른을 보이고 있다. (출처: 권기식 기고)

2시간 시범 공연, 800여 관중 환호

북한 태권도 시범단 공연장에 인공기... 북미 해빙이나 관심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뉴욕 첫 공연이 12일 필조 칼리지의 로빈스 리오제빌드 체육관에서 800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뜨거운 환호 속에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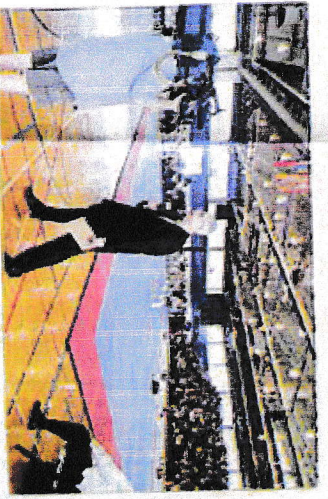
2007년 미 시애틀에서 공연을 했던 북한 태권도단의 뉴욕시 첫 공연이 처음이다. 전미 보스톤에 이어 뉴욕에서 두 번째로 태권도 공연이 열렸다.

시범단은 양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걸린 체육관에서 2시간 동안 태권도의 기본 동작, 승관·보통 격파, 각파기, 오십팔 등 시범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특히 이날 공연에서 관중들은 태권도 격파기에 격파처럼 힘을 보태며 시흥 호기이었던 분위기가 인출했다. 무엇보다 시범단은 관중석이 있는 이리저리

살 1면을 양조장으로 처리되고 있다. 양조장(구와) 40도 온도 남 지역(구와) 처리되고 있다. 지역(구와) 처리되고 있다. 지역(구와) 처리되고 있다.

보·미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 이는 가운데 이리저리 북·미간 교류(구와) 처리되고 있다. 지역(구와) 처리되고 있다.

2011년 6월 13일(월요일)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열린 필조칼리지에는 미국의 CNN과 일본 NHK 등 외국계 언론사들도 모습을 보이며 관중들을 나타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열린 필조칼리지에는 미국의 CNN과 일본 NHK 등 외국계 언론사들도 모습을 보이며 관중들을 나타냈다. 이날 필조칼리지 타조제빌드 공연을 주관한 태권도 시범단은 13일 뉴욕시 중앙 거리 공연으로 미국을 떠날 예정이다. (출처: 권기식 기고)

인문종합연구소
인문학의원
서울시, 구로구, 구월동 1020호
011-894-5451
www.inhw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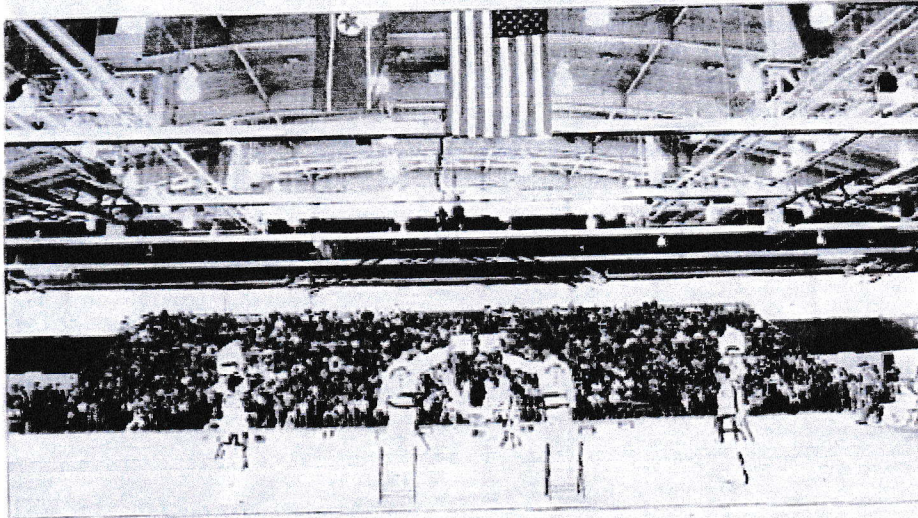


중앙일보

사 02-8201-7100 7개총서 02-8200-5800
New York JoongAng Ilbo 제14223호

ny.koreadaily.com

June 13, 2011



뉴욕에 온 북한 태권도 시범단 북한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이 12일 퀸즈칼리지 체육관에서 공연을 펼쳤다. 17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은 품세의 격파 시범을 선보였고, 실전 같은 호신술 대련으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경제게시2면> 신동한 기자

500여 관객들 뜨거운 박수

북한 태권도 시범단 퀸즈칼리지 공연

북한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12일 퀸즈칼리지 체육관에서 시범을 펼쳤다.

태권도 단종(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시범단은 마닐라 시간가랑 진행된 공연에서 품세의 격파 등을 선보였다. 또 여성 단원이 포함된 남성 단원과 실전 같은 호신술 대련을 하는 순서에서는 500여 관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태 단장은 "태권도는 조선 민족의 전통무도로 해외 보급은 불과 반세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대중무도로서 국제무대에서 만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태권도는 세계 친선과 화합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3년 8개월 만이다. 첫 방문 때는 중·서부 5개 도시에서 시범을 보였다.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영국 한 시범단은 11일 보스턴에서 첫 공연을 했으며, 14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밸리에서 마지막 무대를 선보인다.

이런 공연을 기획한 '태권도타임스' 경우진 대표는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분단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최대한 태권도를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동한 기자

조미선

생년월일

태권도시범단 미국방문 《조미선선, 화해, 평화의 기회》

3곳에서 시범출연, 대절찬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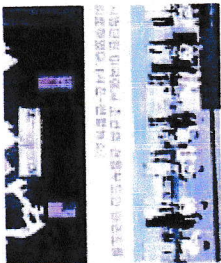
17일(목) 구상연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시범단이 9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동부지역의 도시들에서 시범출연을 하였다. 태권유세소주보스톤(11일), 뉴욕(12일), 앨라배마주 필리델피아(14일)의 3개 도시에서 진행된 시범출연은 미국시민들께 태극동포들의 태권술을 알렸다. 시범단은 또한 각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문화교류, 교육교류, 관광교류 등에 조선의 전통무도인 태권도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교향,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시범출연에 앞서 연설한 태권도시범단 단장은 조선태권도위원회의 태권도 시범출연단 《이번 미국방문이 태권도 모국인 조선을 리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조미선에 의한, 화해, 평화의 기회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객석에서는 무절임의 박수가 울렸다.

국가 주막으로 시적

이번 태권도시범출연을 초청, 주최한 것은 《미국 태권도타임스》 장우진회장이었다. //

1971년에 미국에 이민한 그는 태권도의 발전공헌이 아니라 사실상, 구체화시키는 손수락, 태극권, 태권도인을 소개하고 있다. 1980년 부터 《미국도타임스》를 발전시켰다.

태권도시범단의 미국방문은 2007년 10월이던 2번 태권도타임스 단장우진회장이 초청, 주최하였다.



미국 태권도타임스 단장 우진회장과 태권도시범단 단장 조미선 씨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